

<2010년 9월 18일 토요일 새벽 잠언>

1. 빨리 해야 자기 특기와 재주와 소질과 재능을 발휘한다. 물론 나와 같이 해야 한다. 성지땅 나의 구상, 너희는 실천이 아니었느냐.
2. 해 놓은 것만 영원히 남아 있고, 생각만 한 것은 물같이 흘러가 버리고 바람같이 지나가 버리고 없다. 고로 실천하라고 내가 보낸 자로 모범을 보이고 그같이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표상을 세워서 하니 모두 따라 행하여라.
3. 실천하면 날마다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은 동일한 그것만을 보게 된다.
4. 세상에 많고도 많은 작품이 있지만 자기를 위한 작품이거나 자기 민족을 위한 작품이라면 거기서 끝난다. 나 예수를 위한 작품이라면 나와 영원한 작품과 하나 되어 영원한 기쁨을 누린다. 내 것에만 내가 함께한다.
5. 때가 되리니 세상을 위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들이 바람과 물과 불로 어찌 되는지 너희는 지켜보아라. 사람들이 보고 듣고 말하는 것들이 속력을 내어 오고 있다.
6. 네 몸, 네 생각과 마음, 네 영을 아주 빛나는 영원한 작품으로, 천주적인 대결작품으로 만들어라. 이것만이 너를 위해 영원히 남아진다.
7. 모두 멋있고 놀랄 만한 작품들을 자기 사명대로 만들어 나를 희망치게 하여라. 내게 보여 주어라. 그래야 나도 보려고 너에게 간다. 늘 실망하는 것들만 보여 주려느냐.

8. 이 시대 너희 민족과 세계 모든 자들에게 보여 주어라.

9. 세상에서 잠시 있다가 허무하게 끝날 것들과, 나와 내 아버지와 성령님이 별 관심도 없는 것들과, 어린아이와 같이 즐기는 것들과, 저 강 건너 사는 자들이 행하는 것들을 모두 어린아이가 행하는 것들로 여기고, 너희는 영원한 것을 귀히 여기며 행하여라.

내가 살았던 별 보잘 것 없는 삭막한 이스라엘 땅을 보아라. 환경이 좋고 경치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여드느냐. 그것이 아니다. 작고 보잘 것 없지만 나 예수가 거쳐 가서 그것을 보려고 모두 오지 않느냐. 내가 복음을 전한 곳이기 때문에 시대의 작품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그들이 나를 제대로 받아들였으면 그 땅은 온 세계에서 더욱 더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곳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만큼만 된 것이다.

10. 이 시대 마지막 때, 너희와 너희가 쓰는 것들이 대결작품들이다. 빨리 만들고 행하여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보게 하여라. 너희가 최고 걸작품이다. 그리고 너희가 쓰는 것들이 최고 걸작품이다.

11. 걸작품을 만드는 것에 빠지면 먹는 것, 자는 것, 환경도 다 잊고 거기 빠져 행하게 된다.

12. 나를 위해 작품을 만드는 것이면 내게 물으면서 하여라. 내게 물으면 코치도 해 주고 구상도 해 주면서 같이 한다. 일만 하지 말고 내게 묻고 나와 같이 하자. 내가 천주의 걸작품을 만든 창조자가 아니냐. 내 맘에 맞게 내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만들어라. 네 인생을 마치 초상화 그리듯 세밀하게 만들어라.

13. 작은 것도 나와 함께 만든 것은 저 강 건너 빌딩과는 비교가 안 되게 영원한 값이 있다.